

경제관계장관회의 **경제부총리** 모두발언(7.10)

-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조금 전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
고용률과 경황률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,
실업률도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.
- 취업자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소폭 확대된
9만 6천명을 기록하였습니다.
 -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한 가운데,
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, 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
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.
- 이에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부처가 함께 고용상황을
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 - 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과 민생 개선으로
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노력을 배가하고,
 - 건설업 근로자 전직지원, 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
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.
 - 아울러 범부처 일자리TF 중심으로 업종별·계층별 고용 여건을
매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적기 강구토록 하겠습니다.
- 또한, 지난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
「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대책」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
경영부담 완화와 재취업 등 새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.
 - 지난 8일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,
이번달 내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하여
소상공인 애로를 가중시키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.

- 소상공인이 각종 정책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도 이번달 내로 가동을 시작합니다.
 - 다음달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여러분의 채무걱정도 과감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.
- 한편,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.
- 정부는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, 3기 신도시 등 기계화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.
 -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합니다.
- *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(%): ('19)89.6 ('20)97.1 ('21)98.7 ('22)97.3 ('23)93.6 ('24.1Q)92.1
- 이를 위해,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(9월)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·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- 많은 국민들께서 "여전히 경기가 어렵다"고 인식하는 상황에서,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는 "속도"입니다.
- 자동차 경주에서 수 초 안에 일사불란하게 정비를 마치는 "피트 크루"와 같이,
 - 모든 부처와 지자체, 관련 기관은 합심하여 말씀드린 대책들이 신속하게 그러나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.

[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·제도·인프라 구축방안]

- 정부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'폐기물'이 아닌 '자원'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- 배터리 제조부터 폐차 후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민·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현 정부 임기 내 구축합니다.

-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된 유용한 광물이
배터리 신문에 어느 정도로 투입되었는지를 검증하는
'재생원료 인증제도'를 내년부터 도입하겠습니다.

- 금번에 마련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
'사용후 배터리 통합법률'도 차질 없이 연내 마련하겠습니다.

[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(II)]

- 다음은 지난 3월 발표한 핀테크·로봇 등 규제혁신 방안에 이어 마련한
자율주행 등 두 번째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입니다.
- 시험·연구용 자율주행차는 충분한 연구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
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합니다.
- “한국판 타임스퀘어” 조성을 위하여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자유로운
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(現 4개소)도 조속히 확대하겠습니다.
-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,
규제개선 방안을 시리즈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

[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]

-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,
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합니다.
-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
수수료 부담을 기존 대비 20% 이상 경감하겠습니다.
- 초기기업이 실적 부족을 이유로 계약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
업력 3년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완화된 평가기준을
5년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겠습니다.

□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.

○ 오늘은 특별히 1호 안건인

「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(Ⅱ)」을
생성형 AI* 아나운서를 활용한 영상 보고로 공개 진행한 후
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.

* 대규모 데이터 기반 훈련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출력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유형